

서울지역 농업인의 영농의식

Farmers' Views on the Farming in Seoul

황한철* · 박선용** · 한경수***

한경대학교 농촌공학과* · 농촌진흥청** · 농업기반공사***

Hwang, Han Cheol* · Park, Sun Yong** · Han, Kyong Soo***

* Dept. of Rural Engineering,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Korea Agricultural &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ABSTRACT---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farm area in Seoul, in providing fresh vegetables, a pleasant environment and a good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ave greatly reduced the farm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rmers' intentions and attitudes to provide supporting data for planning the strategy of urban agricultural development. All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contingency tables and the Chi-square test using the SAS computer statistical package. Based on analysis of the survey data, the leaseholders were found to be more satisfied with their job than the landowning farmers. Also, the small-scale farmers with green houses showed greater job satisfaction than the ordinary large-scale farmers. Farmers' views on the farming in Seoul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status. Therefore, agricultural strategies in there should be considered their different attitudes.

1. 서론

도시지역내의 농지는 도시민의 먹거리를 생산·제공하는 농업적 기능은 물론 생태계 보전, 오염제거, 기상조절, 토지보전 등의 환경보전 기능과 교육, 문화,

사회 등의 정서적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최근에는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도시민의 휴식·체험공간으로도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도시개발의 압력, 지가상승 등

으로 인하여 농지의 잠식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지역은 그 정도가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거래 및 소유가 대폭 완화되고 또 앞으로도 농지에 대한 규제는 계속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발제한구역내 규제 역시 상당히 완화되고 있어 농지전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발전 과정 속에서 도시·산업적 토지수요는 필수불가결하며 이에 따른 농지 전용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내에 혼재하고 있는 농지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도시농업은 위기 속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건전한 도시농업으로의 정착을 위하여 도시농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장기적인 농업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인의 영농 의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만족도, 농업발전의 장애요인 등에 관한 영농의식을 지역별, 재배작목별, 연령별, 농지소유규모별, 농지소유형태별 등으로 나누어 농업인의 특성에 따라 각각 조사·분석하고 장차 서울지역의 농업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 도시지역내의 영농활동에 대한 장애요인과 각종 영농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표본을 추출하고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 서울지역 농업의 일반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등의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자경농과 임차농의 경우는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각 지역단위 작목반 집단 영농교육장에서 본 연구의 조사 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단체설문도 병행하였다. 부재지주의 경우는 개별 면담이 어려워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수율이 저조하여(20%) 전화를 통한 면담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74매(전체농가 2,526중 6.90%)가 수집되었는데 농지소유형태에 따라 자경농가 44매(25.29%), 임차농가 84매(48.28%), 부재지주가 46매(26.43%)로 집계되어 서울지역 농가특성에 비추어 임차농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강동, 송파구) 56매(32.20%), 서부지역(강서, 양천구) 28매(16.09%), 남부지역(강남, 서초구) 60매(34.48%), 북부지역(중랑, 은평구) 22매(12.64%), 기타지역 8매(4.5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재배작목별로는 수도작농가 18매(10.35%), 채소농가 56매(32.18%), 화훼농가 30매(17.24%), 과수농가 19매(10.92%), 축산농가 5매(2.87%), 부재지주 46매(26.4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세 이하 28매(16.10%), 41-50세 51매(29.30%), 51-60세 61매(35.10%), 61세 이상이 34매(19.50%)의 50세를 기준으로 하여 전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사된 자료는 SAS통계패키지를 통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II. 서울지역 농업인의 영농의식 분석

1. 서울지역의 농업현황

서울특별시는 도시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농지들이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에는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북부 중랑구 일대의 과수지대, 남부지역의 채소 및 화훼지대, 서부지역은 수도작 및 채소지대, 동부지역이 채소 및 화훼지대 등, 전체적으로 4개의 농업지역만으로 나뉘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의 농지면적은 1998년말 현재 2,106ha로(답 753ha, 전1,353ha) 전체 행정구역면적(60,552ha)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호수는 2,526호이며 농가인구는 10,633명이다. 최근 5년 사이 농가호수는 25% 감소하였고, 농가인구 역시 27.4%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농지면적은 4% 감소로 그 추세가 완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줄어들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 분	분 류	설 문 수	계
농지소유형태별	자경농가	44(25.29)	174 (100)
	임차농가	84(48.28)	
	부재지주	46(26.43)	
지역별	동부(강동, 송파구)	56(32.20)	174 (100)
	서부(강서, 양천구)	28(16.09)	
	남부(강남, 서초구)	60(34.48)	
	북부(중랑, 은평구)	22(12.64)	
	기 타	8(4.59)	
재배작목별	수 도 작	18(10.35)	174 (100)
	채 소	56(32.18)	
	화 훼	30(17.24)	
	과 수	19(10.92)	
	축 산	5(2.87)	
	부재지주	46(26.44)	
연령별	40세 이하	28(16.09)	174 (100)
	41 ~ 50세	51(29.31)	
	51 ~ 60세	61(35.06)	
	61세 이상	34(19.54)	

〈표-2〉 서울지역 농가현황 및 농지면적

년도별	농가현황		농지면적(ha)		
	농가호수 (가구)	농가인구 (명)	계	논	밭
1985	4,100	22,461	2,999	1,432	1,488
1990	3,410	15,204	2,574	1,294	1,280
1991	3,894	18,967	2,413	1,140	1,270
1992	3,394	15,406	2,330	1,090	1,231
1993	3,345	14,629	2,185	963	1,222
1994	3,140	13,480	2,150	870	1,280
1995	2,745	11,352	2,187	789	1,398
1996	3,284	13,731	2,130	762	1,368
1997	2,515	11,083	2,117	739	1,378
1998	2,526	10,633	2,106	753	1,353

(자료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 1995 ~ 1998)

(단위 : 매수, ()는 %) <표-3> 서울특별시 주요 작목별 재배면적

년도별	채소재배면적 (이용률면적)	화훼재배면적	과수재배면적	벼재배면적
1985	2,195	111	85	1,241
1990	1,384	210	79	1,178
1992	1,416	206	66	903
1994	1,734	251	60	761
1996	1,816	258	76	687
1997	1,855	277	83	658

(자료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 1998)

최근 5년간 주요 작목별 재배면적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벼 재배면적은 꾸준히 감소(903ha→658ha)하는데 비해 채소 재배면적(1,416ha→1,855ha)과 화훼재배면적(206→277ha), 과수 재배면적(66ha→83ha)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전체 농지면적이 계속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집약농업의 형태인 시설하우스 재배와 고소득의 과수재배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도시농업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영농 만족도

1) 농지소유 형태별 영농 만족도

서울지역 농업인의 영농규모, 지역농업여건, 영농소득, 농업전망 등 영농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표 4>와 같이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4.25%), 만족(21.55%), 보통(40.88%), 불만족(25.61%), 매우 불만족(7.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5%이상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를 농지소유자인 자경농가와 농지를 소유하지

<표 4> 농지소유 형태별 영농 만족도

(단위 : ha)

항목별	구분	응답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비고
영농소득	수도작농가	16	0.00	6.25	25.00	50.00	18.75	$x^2=29.476$ P= 0.021
	채소농가	58	3.45	17.24	55.17	22.41	1.73	
	화훼농가	31	0.00	16.13	61.29	16.13	6.45	
	과수농가	18	0.00	11.12	72.22	11.00	5.66	
	소계(평균)		0.86	12.68	53.42	24.88	8.16	
농업전망	수도작농가	16	0.00	12.50	31.25	43.75	12.50	$x^2=13.454$ P =0.639
	채소농가	59	1.69	13.56	32.20	40.68	11.87	
	화훼농가	32	0.00	6.25	59.38	31.25	3.12	
	과수농가	17	0.00	5.88	35.29	47.06	11.77	
	소계(평균)		0.42	9.54	39.53	40.69	9.82	
소계 (평균)	수도작농가		0.00	9.37	28.12	46.87	15.64	$x^2=39.447$ P =0.001
	채소농가		2.57	15.40	43.68	31.54	6.81	
	화훼농가		0.00	11.19	60.33	23.69	4.79	
	과수농가		0.00	8.50	53.75	29.06	8.69	
전 체(평균)			0.64	11.11	46.47	32.78	9.00	

〈표 5〉 연령별 영농 만족도

(단위 : %)

항목별	구분	응답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비고
농지규모	40세 이하	24	4.17	29.17	66.66	0.00	0.00	$\chi^2=19.168$ P= 0.085
	41-50세	38	5.26	39.47	52.64	2.63	0.00	
	51-60세	50	8.00	38.00	42.00	10.00	2.00	
	61세 이상	20	5.00	30.00	40.00	10.00	15.00	
	소계(평균)		5.60	34.16	50.33	5.66	4.25	
농업여건	40세 이하	22	22.73	18.18	36.36	22.73	0.00	$\chi^2=21.024$ P =0.050
	41-50세	40	15.00	35.00	32.50	12.50	5.00	
	51-60세	50	4.00	28.00	36.00	24.00	8.00	
	61세 이상	19	0.00	10.53	31.57	47.37	10.53	
	소계(평균)		10.43	22.92	34.12	26.65	5.88	
영농소득	40세 이하	24	8.33	16.67	45.83	25.00	4.17	$\chi^2=34.137$ P = 0.001
	41-50세	39	0.00	2.56	82.05	10.26	5.13	
	51-60세	46	0.00	21.74	39.13	36.96	2.17	
	61세 이상	18	0.00	16.67	38.88	27.78	16.67	
	소계(평균)		2.08	14.41	51.48	25.00	7.03	
농업전망	40세 이하	24	4.17	4.17	45.83	33.33	12.50	$\chi^2= 12.527$ P =0.404
	41-50세	40	0.00	7.50	47.50	40.00	5.00	
	51-60세	47	0.00	17.02	31.91	38.30	12.77	
	61세 이상	17	0.00	5.88	29.42	52.94	11.76	
	소계(평균)		1.04	8.64	38.68	41.14	10.50	
소계 (평균)	40세 이하		9.85	17.05	48.66	20.27	4.17	$\chi^2=34.129$ P =0.001
	41-50세		5.07	21.13	53.67	16.35	3.78	
	51-60세		3.00	26.19	37.26	27.31	6.24	
	61세 이상		1.25	15.77	34.97	34.52	13.49	
	전 체(평균)		4.79	20.03	43.65	24.61	6.92	

많은 임차농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경농가는 불만족(31.90%)과 매우 불만족(10.80%)으로, 임차농가의 불만족(19.33%)과 매우 불만족(4.6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불만족도(불만족, 매우 불만족)에서 농지규모(자경농가 21.94%, 임차농가 2.44%), 농업여건(자경농가 43.90%, 임차농가 21.69%), 농업소득(자경농가 45.94%, 임차농가 25.93%), 농업전망(자경농가 58.98%, 임차농가 45.69%) 등 모든 항목에서 농지를 소유한 자경농가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이는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농가의 영농에 대한 만족도가 자경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령별 영농 만족도

연령별 영농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세 이하가 75.41%(보통 이상), 41~50세 79.87%, 51~60세 66.45%, 61세 이상 51.99% 등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영농에 불만족한 경향이 강하고 50대 미만의 비교적 낮은 연령에서는 만족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항목별 불만족도(불만족, 매우 불만족)를 다시 연령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40세 이하는 농지규모(0.00%), 농업여건(22.73%), 영농소득(29.17%), 농업전망(45.00%) 순으로 나타났고, 41~50세는 농지규모(2.63%), 농업여건(17.50%), 영농소득(15.39%), 농업전망(45.00%)의 순으로, 51~60세 농지규모(12.00%), 농업여건(32.00%), 영농소득(39.13%), 농업전망(51.07%)의 순으로,

61세 이상은 농지규모(25.00%), 농업여건(57.90%), 영농소득(44.45%), 농업전망(64.70%) 순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연령층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업전망, 영농소득, 농업여건, 농지규모의 순으로 불만족을 보이는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장차 농업소득의 감소와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지역별 영농 만족도

지역에 따른 영농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동부지역(73.62% 보통이상), 남부지역(74.17%), 북부지역(73.22%)은 비슷한 경향을 보

이고 있는 반면, 수도권 지대인 서부지역(49.05%)은 매우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44.071$, $P= 0.001$).

각 항목별로는 남부지역의 경우 지역농업여건에서(매우만족 21.15%, 만족 30.77%)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북부지역에서는 농지규모에서(매우만족 31.25%, 만족 37.50%)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농업전망(불만 35.71%, 매우불만 14.29%)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부지역은 전체적으로 고른 성향을 보였다(표 6).

(단위 : %)

〈표 6〉 지역별 영농 만족도

항목별	구분	응답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비고
농지규모	동부지역	45	0.00	42.22	55.56	2.22	0.00	$x^2=70.397$ P=0.001
	서부지역	15	0.00	33.33	33.33	13.34	20.00	
	남부지역	50	6.00	36.00	54.00	4.00	0.00	
	북부지역	16	31.25	37.50	12.50	12.50	6.25	
	소계(평균)		9.31	37.26	38.85	8.02	6.56	
농업여건	동부지역	43	4.65	20.43	44.19	30.73	0.00	$x^2=36.097$ P=0.015
	서부지역	14	0.00	7.14	28.57	42.86	21.43	
	남부지역	52	21.15	30.77	26.92	17.32	3.84	
	북부지역	16	0.00	31.25	43.75	12.50	12.50	
	소계(평균)		6.45	22.39	35.85	25.85	9.46	
영농소득	동부지역	44	0.00	9.09	63.64	22.73	4.54	$x^2= 22.42$ P = 0.331
	서부지역	14	0.00	14.29	28.57	50.00	7.14	
	남부지역	48	4.17	18.75	52.91	22.92	1.25	
	북부지역	15	0.00	6.67	80.00	13.33	0.00	
	소계(평균)		1.04	12.20	56.29	27.24	3.23	
농업전망	동부지역	45	0.00	0.00	55.55	37.78	6.67	$x^2=32.099$ P=0.035
	서부지역	14	0.00	29.57	20.43	35.71	14.29	
	남부지역	49	2.04	14.29	34.69	40.82	8.16	
	북부지역	14	0.00	14.29	35.71	35.71	14.29	
	소계(평균)		0.51	14.53	36.59	37.50	10.87	
소계(평균)	동부지역		1.16	17.73	54.73	23.58	2.80	$x^2=44.071$ P=0.001
	서부지역		0.00	21.08	27.97	35.24	15.71	
	남부지역		8.34	24.95	40.88	22.52	3.31	
	북부지역		7.81	22.42	42.99	18.52	8.26	
	전 체(평균)		4.32	21.54	41.64	24.96	7.52	

〈표 7〉 재배작목별 영농 만족도

(단위 : %)

항목별	구분	응답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비고
영농소득	수도작농가	16	0.00	6.25	25.00	50.00	18.75	$\chi^2=29.476$ P= 0.021
	채소농가	58	3.45	17.24	55.17	22.41	1.73	
	화훼농가	31	0.00	16.13	61.29	16.13	6.45	
	과수농가	18	0.00	11.12	72.22	11.00	5.66	
	소계(평균)		0.86	12.68	53.42	24.88	8.16	
농업전망	수도작농가	16	0.00	12.50	31.25	43.75	12.50	$\chi^2=13.454$ P =0.639
	채소농가	59	1.69	13.56	32.20	40.68	11.87	
	화훼농가	32	0.00	6.25	59.38	31.25	3.12	
	과수농가	17	0.00	5.88	35.29	47.06	11.77	
	소계(평균)		0.42	9.54	39.53	40.69	9.82	
소계 (평균)	수도작농가		0.00	9.37	28.12	46.87	15.64	$\chi^2=39.447$ P =0.001
	채소농가		2.57	15.40	43.68	31.54	6.81	
	화훼농가		0.00	11.19	60.33	23.69	4.79	
	과수농가		0.00	8.50	53.75	29.06	8.69	
전 체(평균)			0.64	11.11	46.47	32.78	9.00	

4) 재배작목별 영농 만족도

재배작목별 농업소득과 농업전망에 대한 만족도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훼재배농가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보통이상 71.52%), 과수농가(보통이상 62.25%), 채소농가(보통이상 61.25%)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수도작 농가(보통이상 37.49%)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도작 중심지대인 서부지역 성향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도작의 경우 영농소득보다는 농업전망이 다소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채소농가의 경우는 영농소득(보통이상 75.86%)이 농업전망(보통이상 47.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농가의 경우 영농소득(보통이상 77.42%)이 농업전망(보통이상 65.63%)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수농가의 경우도 영농소득(보통이상 83.34%)이 농업전망(보통이상 41.17%)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수도작을 제외한 채소, 화훼, 과수농가의 경우는 영농

소득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농지구모별 영농 만족도

농지구모별 영농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1000평 이하가 가장 높은 만족도(보통이상 77.45%)를 보였으나, 1001-2000평 68.11%, 2001-4000평 72.43% 등으로 4000평 이하의 그룹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4001평 이상(62.18%)에서는 다른 그룹에 비해 오히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계층에 비해 '보통' 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만족과 불만족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 농업에서 농지의 규모가 영농활동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농업에서는 수도작등 재배면적이 큰 작목보다 영농규모가 적은 채소재배와 화훼재배가 더 적합하고 농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별로는 1000평 이하의 적은 영농규모의 농

업인은 지역농업여건(보통이상 92.30%)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1001-2000평 규모에서는 영농규모(보통이상 87.18%), 2001-4000평 규모의 농가는 지역농업여건(보통이상 75.56%), 그리고 4001평 이상에서는 영농규모(보통이상 100%)에 대하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농지훼손(20.15%), 농업인의 고령화(17.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농지소유자인 자경농가와 미소유자인 임차농가를 구분하여 보면, 자경농가는 서울지역 농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미래농업에 대한 불안(46.51%)을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업인의 고령화(27.91%), 농지면적 감소(18.6%), 안정된 농지확보 곤란(6.98%)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임차농가의 경우는 안정된 농지확보 곤란(46.34%)을 가장

〈표 8〉 농지규모별 영농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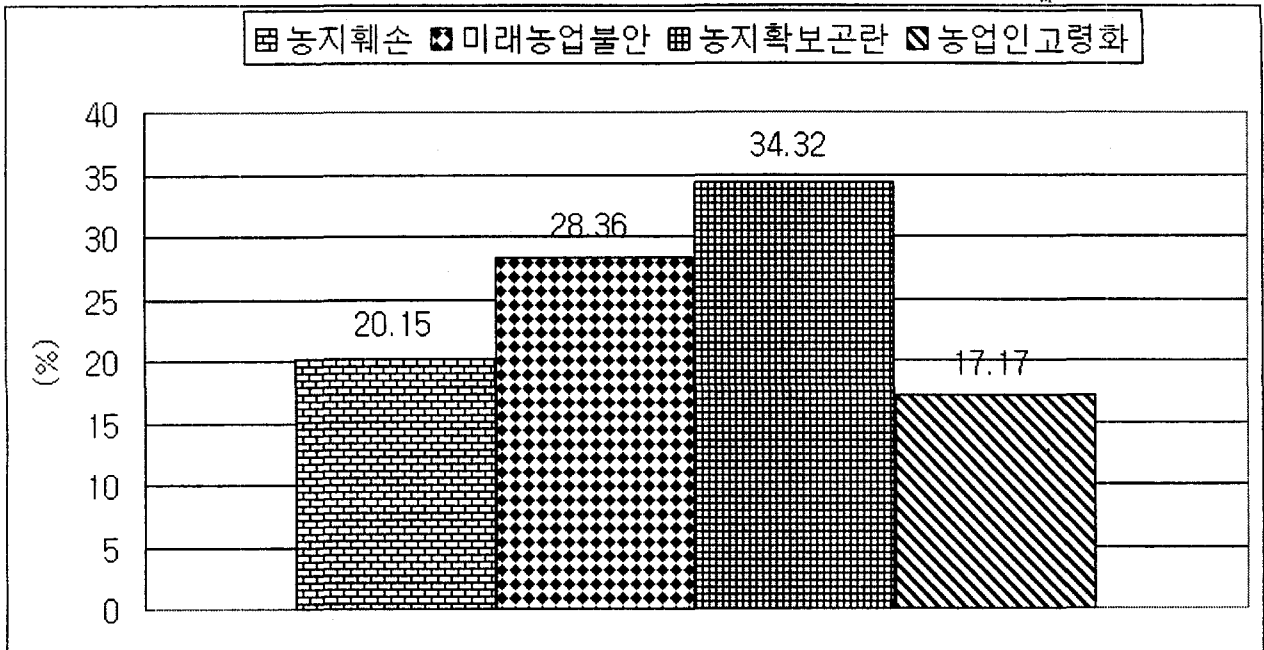
항목별	구분	응답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비고
농지규모	1000평이하	26	0.00	19.23	73.08	7.69	0.00	$x^2=49.791$ P= 0.001
	1001~2000	39	7.69	28.21	51.28	12.82	0.00	
	2001~4000	47	2.13	46.81	42.55	0.00	8.51	
	4001 이상	20	20.00	50.00	30.00	0.00	0.00	
	소계(평균)		7.45	36.06	49.22	5.12	2.15	
농업여건	1000평이하	26	15.38	26.92	50.00	7.70	0.00	$x^2=26.354$ P =0.049
	1001~2000	39	5.13	12.82	38.46	33.33	10.26	
	2001~4000	45	15.56	28.89	31.11	20.00	4.44	
	4001 이상	21	0.00	38.10	14.29	38.10	9.51	
	소계(평균)		9.01	26.68	33.46	24.78	6.07	
영농소득	1000평이하	26	0.00	7.69	61.54	30.77	0.00	$x^2=16.485$ P = 0.420
	1001~2000	38	0.00	21.05	55.26	18.42	5.27	
	2001~4000	42	4.76	14.29	54.76	21.43	4.76	
	4001 이상	21	0.00	9.52	42.86	33.33	14.29	
	소계(평균)		2.75	15.84	49.57	25.74	6.10	
농업전망	1000평이하	25	0.00	0.00	56.00	40.00	4.00	$x^2=27.470$ P =0.037
	1001~2000	40	0.00	12.50	40.00	37.50	10.00	
	2001~4000	43	0.00	9.30	39.53	44.19	6.98	
	4001 이상	20	5.00	20.00	15.00	40.00	20.00	
	소계(평균)		1.25	10.45	37.63	40.42	10.25	
소계 (평균)	1000평이하		3.84	13.46	60.15	21.53	1.02	$x^2=31.467$ P =0.002
	1001~2000		3.20	18.64	46.25	25.51	6.40	
	2001~4000		5.61	24.82	41.98	21.40	6.19	
	4001 이상		6.25	29.40	25.53	27.85	10.97	
	전 체(평균)			4.72	21.58	43.48	24.07	

2. 서울지역 농업발전의 장애요인

서울지역 농업발전에 대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안정된 농지확보 곤란(34.32%), 미래농업에 대한 불안(28.36%), 도시개발에 따른

높은 장애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농지훼손에 따른 농지면적 감소(21.95%), 미래농업에 대한 불안(19.51%), 농업인의 고령화(10.98%) 순으로 나타나 자경농가와 임차농가 사이에 큰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그림 2>. 이는 임차농가들에게는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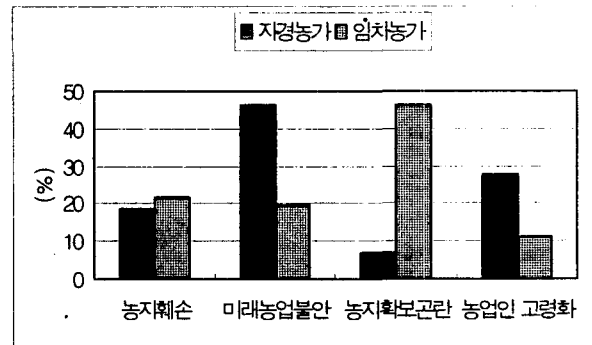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지역 농업발전의 장애요인



정된 농지확보가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이며, 자경농가의 경우 미래농업에 대한 불신으로 농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 살펴보면〈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부지역은 농지확보 곤란(52.27%)이 가장 높고 서부지역(57.14%)과 북부지역(43.75%)은 미래농업에 대한 불안을 높은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다. 남부지역은 각 항목별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결과의 요인은 지역별 농업특징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다. 화훼와 채소의 주 생산지역인 동부지역의 경우 임차농가의 비율이 높고 농지의 집약화가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수도작과 과수농가가 대부분인 서부지역과 북부지역은 농지규모의 변화에 따른 영농소득 향상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작목별 분석에서도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 분석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재배면적의 변화에 대하여 영농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수도작 농가의 경우 미래농업에 대한 불안(47.06%)과 농업인의 고령화(47.06%)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농지의 집약화가 이루어진 화훼농가와 채소농가의 경우 안정된 농지확보의 곤란(화훼농가 46.88%, 채소농가 42.62%)을 가장 큰 장애



($x^2 = 28.648, P = 0.004$)

〈그림 2〉 농지소유형태별 서울농업발전의 장애요인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과수농가의 경우 각 항목별 고른 응답률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농지소유규모에 따른 농업발전 장애요인에 대한 결과를 보면 〈표 11〉과 같다. 1,000평 이하의 농지소유자의 경우 농지확보 곤란(57.69%)을 가장 큰 농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1,001~2,000평 규모에서는 농지확보곤란(41.03%)과 농업인의 고령화(37.69%)를, 2,001~4,000평에서는 미래농업에 대한 불안(31.91%)을, 4,001평 이상의 경우는 농지혜손(38.19%)과 미래농업에 대한 불안(38.10%) 등을 농업발

〈표-9〉 지역별 농업발전의 장애요인

구분	응답수	농지훼손	미래농업 불안	농지확보 곤란	농업인 고령화
동부지역	44	18.18	22.73	52.27	6.82
서부지역	14	0.00	57.14	0.00	42.86
남부지역	53	28.3	24.53	32.08	15.09
북부지역	16	25.00	43.75	12.50	18.75
전체(평균)		17.87	37.03	24.22	20.88
$\chi^2=170.583, P=0.001$					

전의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다. 즉 농지규모가 적을수록 농지확보곤란을 장애요인으로 의식하고 있고 농지규모가 클수록 미래농업에 대한 불안을 농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서울지역의 농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하여 도시지역 영농활동에서의 장애요인과 각종 영농여건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지역별, 재배작목별, 농지규모별, 연령별, 농지소유형태별로 각각 조사·분석하였다.

농지소유주인 자경농가와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농가의 영농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농지를 소유한 자경농가 보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농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

별 영농에 대한 만족도에서 고령에 비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만족)이고 적극적인 영농의욕을 보였다. 그리고 재배작목별 영농에 대한 만족도에서 화훼 및 채소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한 서울농업의 변화로 화훼 및 채소, 과수재배 면적의 증가 추세를 들 수 있다. 영농규모별 분석에서는 재배규모가 큰 농가 보다 오히려 화훼, 채소와 같이 적은 면적의 시설재배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지역 농지이용 방향은 임차농가를 중심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농가들에게 안정된 농지확보를 위해서 농지이용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고 고령층보다는 영농의욕이 강한 젊은층을 위한 농업정책과 농업소득증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농업에서는 대규모의 영농단 지원보다는 소규모의 시설작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지역 농업인의 영농의식을 농지소유형태별, 재배작목별, 지역별, 연령

〈표 10〉 재배작목별 농업발전의 장애요인

(단위 : %)

구분	응답수	농지훼손	미래농업 불안	농지확보 곤란	농업인 고령화
수도작	17	5.88	47.06	0.00	47.06
채 소	61	21.31	24.59	42.62	9.84
화 훼	32	25.00	18.75	46.88	9.38
과 수	19	26.32	42.11	5.26	26.32
전체(평균)		19.62	33.12	23.69	23.15
$\chi^2=40.625, P=0.001$					

〈표 3-11〉 농지규모별 농업발전의 장애요인

(단위 : %)

구분	응답수	농지훼손	미래농업 불안	농지확보 곤란	농업인 고령화
1000평 이하	26	11.54	15.89	57.69	15.38
1001-2000평	39	23.08	28.21	41.01	7.69
2001-4000평	47	14.89	31.91	27.66	25.54
4001평 이상	21	38.19	38.10	9.52	14.28
$\chi^2=154.850, P=0.001$					

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농지규모, 농업여건, 영농소득, 농업전망 등에 대한 만족도와 도시농업의 장애요인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업인의 특성은 물론 지역특성과 재배작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영농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도시농업의 특성 또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가 서울지역 농업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 1974

15. 和田照男編著. 地域農業振興と農地利用計劃, 地球社, 1986

參考文獻

1. 강인철, 서울근교 화훼재배농가의 현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2. 이병석외 3명, 우리나라 농업 및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의식에 관한 연구, 농어촌진흥공사, 1991
3. 이정훈, 서울시 인접 농업지역의 「비닐하우스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4. 이재덕, 도시주변 농촌지역의 변화유형과 농업형태 분화,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5. 장승변, 도시내 농지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강서구내 농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조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6. 장지인, 박상규, 이경주, SAS/PC를 이용한 통계자료 분석, 법문사, 1993
7. 한표환, 도시내 농지활용 및 보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2-18(제163권), 1993
8. 한표환, 박희정, 대도시 농지전용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지방행정연구, vol. 7. no. 4, pp. 1-18, 1992
9. 경기개발원, 대도시주변 농촌지역정비에 관한 연구, 1996
10.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1992~1999
11. 농촌진흥청, 농가경영상담조사자료, 199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도시지역의 토지소유와 이용에 관한 사례조사연구, 1994
13. Bunce, M., Rural Settlement in an Urban World, St. Martin's Press, 1982
14. Munton, R., "Farming on the Urban Fringe" in Johnson, J.H., Suburban Growth, 201-224,